



## 2018년도 고려요양병원 어버이날 행사



2018년 5월 8일 고려 요양병원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다. 매년 병원 정원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지만, 올해는 날씨가 서늘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야외가 아닌 3층 강당 내에서 진행을 하였다. 매년 행사와 같이 모두의 부모님이신 어르신분들의 가슴에 생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임직원들이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며, 어버이 은혜 합창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어느 해와 다름없이 진행하는 행사이지만, 매년 어르신분들의 끊이지 않는 입가의 미소가 오히려 임직원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아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올 한 해도 병원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병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하며 올해의 어버이날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다.

- 글 : 이준엽 (고려요양병원, 기획실장)

## 고려요양병원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어르신들께 달아드린 카네이션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고생하신 우리 어버이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과 가족이 한마음으로 어르신을 위로하여 드렸으며 생화로 만든 카네이션을 준비하였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날이지만 이날 한번 더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러주시니 두 분 아니면 어찌 우리가 있으리오. 하늘같은 어버이 은혜를 깊이깊이 되새기며 오늘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르신들의 묵념으로 시작하여 병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모두가 어르신에게 감사의 인사와 “어버이 은혜” 노래로 위로하여 드렸다. 2부 행사로는 『해맞이 예술 공연단』의 공연으로 시작 되었다.

오늘의 멋진 사회자 배소진선생님께서 구수한 사회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셨으며 소속된 가수들의 멋들어진 노래 솜씨와 춤은 가히 유명 공연단 못지않게 멋있게 진행하였다.

고려병원 직원들의 장기자랑은 어르신들을 더욱 신명나게 해 주었다. 1시간 20여분만의 행사를 마치고 함께 참여한 가족들은 어르신 방으로 가셔서 어르신에게 식사수발을 해드리고 야외에 차려진 뷔페를 드시고 행사를 모두 마쳤다. 오늘의 행사를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더 신명나고 추억이 가득한 행사를 진행 하여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글 : 서울해 (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이호근 병원장님의 인사말



3병동 축하공연



2병동 축하공연



해맞이 예술 공연단의 축하공연

## 고려요양병원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먼저 든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머니를 잊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 이렇게 죄인스러워해야 하는 건지... 죄스러움이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고려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신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요양병원 입원 전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집에서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정생활로 날로 피폐해 가는 같고 자신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변하면서 우울증이 왔었다. 할 수 없이 요

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여러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중 고려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친구 모친도 고려요양병원에서 계시다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포항에서는 여러모로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을 하고 나서 그동안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나아져 갔다. 처음에 어머니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날이 갈수록 잘 계시는 것을 느꼈고 집에서 보다 건강이 좋아졌고 주변 분들과도 잘 계시는 것 같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해져 가는 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기념행사가 생각보다 규모가 큰 편이었다. 어버이날에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을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다. 그 연락과 별개로 어버이날이라 병원을 찾았는데 마침 어버이날 기념행사 중이라 어머님과 함께 구경하게 되었다. 모든 직원이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위로행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집에 계셨으면 느낄 수 없는 어울림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고 다들 진정으로 공연하는 것을 느꼈다. 개개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하지 못한 효도를 병원 측에서 먼저 해 주시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를 위한 뷔페 음식도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신 것에 대해 미안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 가지로 병원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고려요양병원의 병원장님을 위시한 모든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고려요양병원으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글 :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 즐거웠던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간호사 선생님들과 직원 여러분이 빨간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예쁘게 달아 주셨다. 매년 자식들을 대신해서 정성스럽게 달아주니 참 고맙고 감사했다.

오전에 축하 행사를 위해 예술단에서 가수 여러 명과 봉사자를 위해 봉사단들도 오셨다. 잔치 분위기에 마음까지 들떠서 기분이 좋았다. 예쁜 옷을 입고 흥겨운 노래와 춤을 보여주신 가수 봉사자들이 덕에 신이 났다.

1층 간호사 선생님은 가수 못지않게 실력이 대단했고, 2층 간호사 선생님 무용은 병아리처럼 예쁘게 잘해주시고, 3층 간호사 선생님의 구수한 각설이 타령으로 전부 웃음바다가 됐다. 각 층마다 장기자랑을 연예인 못지않게 잘 해서 하루 종일 흥이 나고 즐거워서 어버이날이 일 년에 한 번만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춘추에도 또 이런 즐거운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즐거운 행사를 준비해주신 병원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끝으로 고려요양병원에 입원한 모든 분들 오래토록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 글 : 정정순 어르신

## 의료 취약지역 봉사활동

고려요양병원에서는 농어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의료시설과 거리가 먼 농어촌을 지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의료봉사 활동으로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보건교육과 양방, 한방으로 진료하고 처방하여 지역사회에 의료 혜택을 드리고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포항시 송라면 방석 1, 2동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였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찾아온 봉사단의 마음이 더 흐뭇하였다. 양방도 인기가 있었지만 특히 한방의 침은 농어촌에서는 쉽게 접할 기회가 없으므로 모든 어르신들의 관절염과 요통, 신경통 등에 많은 도움을 드렸다. 침을 맞으면서 어르신들과의 대화로 보건교육도 함께 병행하여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드렸으며 상담과 진료 후엔 시원하다고 하시며 손수 타신 커피와 음료 등을 주셨다.

방석 2동에서는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85세 이상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우 건강해 보였다. 아마도 바닷가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많이 드셔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해산물을 자주 드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네 자랑도 많이 해주셨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어르신들께서 서운해하시면서 다음에도 꼭 우리 마을에 오라고 부탁하셨다. 우리네 정서로 정이라는 단어가 있기에 그 정을 그리워하나 보다. 다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가서 여러모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글 : 서울해 (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고려요양병원 의료봉사 모습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방석 1, 2동을 방문하였다.

## 포항예술고등학교 봉사활동

고려요양병원에서는 포항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행사가 있었다. 이날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준비해온 다양한 장기를 어르신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히 불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르신들과 함께 병원 정원으로 나와 학생들이 준비해온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학생들이 준비해온 공연을 보면서 어르신들께서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가 더욱 기쁘고 행복하였다. 학생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 어르신들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본인들이 준비한 장기를 하나하나씩 선보였다. 악기 연주, 춤과 노래, 그리고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병원 정원의 잔디밭을 무대 삼아 본인들이 준비한 공연을 아낌없이 어르신들에게 선사하였다.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으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들의 박수갈채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포항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야외 공연은 어르신들께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어르신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인사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어르신들을 안아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며 따뜻한 한마디를 남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예쁜 모습을 또 보고 싶다고 아쉬워하시며 다음에 다시 놀러와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달라고도 하셨다. 학업공부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준 포항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 글 : 서울해 (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공연시작전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학생 봉사단



어르신들을 위한 학생들의 합창



어르신들을 위한 멋진 색소폰 연주



다음 공연을 기약하며 어르신들과의 인사

## 고려요양병원 된장 뜨는 날

고려요양병원에서는 해마다 장을 담가 이맘때가 되면 된장을 건져 장과 간장으로 분리하여 맛있는 된장과 간장을 만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 3일 장을 담가 2달이 지난 지난달 5월 13일 된장과 간장을 떼었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100% 순수 국산콩 10가마를 사용하여 매주 500장을 만들어 장을 담가 된장 11단지, 간장 4단지의 장을 떼서 분리 보관하였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재료의 중요성을 강요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년 즐거운 마음으로 장을 담그고 된장과 간장을 뜨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번 된장·간장을 뜨기 위해 여러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셨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에 부치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다. 장을 뜨는데 고생하신 봉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드리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대접해드리니 봉사자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쉬어가며 일을 도와주셨다.

김장은 겨울 농사요, 장은 일 년 농사라, 장 담그는 일은 “일 년 지 대사”라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한 고을의 정치는 술맛이요, 한 집안의 일은 장맛이라고 한다. 올해 담근 장맛은 병원 어르신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국산콩으로만 담근 장맛은 어디에도 비교가 안되는 음식 맛을 낸다. 장이 맛있듯이 병원의 인심도 여기서 우러나는 것 같다. 올해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 신바람이 절로 난다. 이번 장 뜨기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병원생활을 할 수 있어 웃음이 절로 난다.

- 글 : 서울해 (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고추와 숯을 넣어 발효시킨 메주



덩어리진 메주를 으깨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장을 독에 담습니다.



## 요양병원 간호사의 역할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하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곳이므로 간호업무의 핵심은 역시 그분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순희 수석간호팀장

요양병원 간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령의 노인환자에 대한 직접간호 제공 및 일상돌봄
- 응급상황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업무 수행
-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의 총체적인 돌봄제공
- 간호 보조 인력 교육 및 감독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인증평가의 주요 인력으로 참여하며 이에 따른 업무 수행
- 물품 소독 관리 및 환경 관리
- 행정 업무 등이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와 같이 상당히 복잡적이다.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요양병원 간호사는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질식, 낙상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항상 긴장 되어 있다. 또한 질환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노인 환자의 섬망, 망상, 과격한 행동 등을 케어하며, 보호자와의 라포(신뢰)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희 고려 요양병원 간호팀은 어르신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게 도와 드리며 노인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 및 실무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 글 : 정순희 (고려요양병원, 수석간호팀장)

## 권순태 한방원장의 토막상식



여름의 따가운 햇살과 높은 습도는 우리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자칫하면 탈진과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생맥산(生脈散)을 사용합니다. 맥문동 8g, 인삼과 오미자 각 4g에 물을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에 달여 한 컵 정도를 마십니다. 더위를 많이 타신다면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달여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더 좋습니다.

- 글 : 권순태 (고려요양병원, 한방원장)

## 고려월보 제10호를 발간하며...

작년 10월 고려요양병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월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병원신문’이라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보호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1호 신문을 처음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발간되는 신문으로 인하여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11호부터는 매월 발간하던 고려월보를 분기별로 발간하려 합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알찬 내용들을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내실 있는 병원 소식지로 거듭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려월보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 이준엽 (고려요양병원 기획실장)

## 6월 생신자 명단

이름	음력생신	양력생신
서순호	5월 17일	6월 30일
하옥녀	4월 21일	6월 4일
최정자	4월 29일	6월 12일
송말자	5월 13일	6월 26일
유옥준	5월 14일	6월 27일
서정란	5월 9일	6월 22일
신분선	4월 24일	6월 7일
조정순	5월 15일	6월 28일
김순선	5월 6일	6월 19일
이외도	5월 10일	6월 23일
신금만	5월 10일	6월 23일

이름	부서	음력생신	양력생신
이준석	한방원장님	5월 1일	6월 14일
주해동	생활관리과장	5월 5일	6월 18일
김화분	영양실	5월 17일	6월 30일
김성희	영양실	5월 11일	6월 24일
최정선	영양실	4월 18일	6월 1일
최 순	케어프로	4월 28일	6월 11일
서미숙	케어프로	5월 16일	6월 29일
박순자	케어프로	5월 14일	6월 27일
김미선	케어프로	4월 26일	6월 9일
이두형	케어프로	5월 5일	6월 18일

## 병원 안내



**달전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Tel. 054-262-2022



**포항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73-2  
 Tel. 054-241-1011

고려요양병원의 이야기는 인터넷 / 모바일로도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려요양병원]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eoh.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hojunfoundation2009>